

신안 반월·박지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기대

유엔세계관광기구 평가 출품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선정

10월 모로코 총회서 결정

'보랏빛 섬(purple island)'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안군 안좌면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이하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출품을 위한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는 8월과 9월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거친후,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2021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후보마을인 반월·박지도에 대한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 197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

으며,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 개 지부(민간단체·교육기관·관광협회·지역관광기관 등)가 가입돼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관광 진흥과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최우수 관광마을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을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후보마을로 선정됐다

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개발의 길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섬마다 지닌 생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 있는 5만 군민과 신안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출품을 위한 대한민국 후보마을로 신안군 반월·박지도, 제주도 하효마을, 고창 고인돌마을 등 총 세 곳을 선정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생·문화예술 교류 업무 협약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해남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 상생 및 문화 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은 전남 유일 국립 문학 레지던스 시설인 백련재 문학의 집을 운영하며 국내 유수의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집필공간과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작가와 상생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업무협약은 한국 문화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집필 공간 및 지역 문화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과 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 집필공간 활용의 다양성 확대,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교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광주·전남권 대학들과 연계한 예비 작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차후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광·담양 우도농악보존회 체계적 계승·발전 위해 통합

영광군의 대표 무형문화유산 우도농악이 통합의 길로 나아간다.

영광우도농악보존회(회장 문한준)와 담양우도농악보존회(회장 김동인)는 최근 우도농악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2개 단체 통합식을 개최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은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에서 유행한 전통 예인 집단 공연인 영무장 농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농악으로, 넓은 지역에서 연주되지만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고 전경환, 고 김오재 명인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후 1990년 우도농악보존회를 설립했으며, 2008년 전남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됐다. 그 후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각 우도농악보존회는 지난 2018년 문한준 우도농악보존회와 영광 우도농악보존회가 통합된 지 3년 만에 영광과 담양 우도농악보존회가 하나 되면서 대통합을 완성하게 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 도초면 '800만 송이 수국 랜선 축제' 1만2000여명 참가 성료



지난달 18일부터 10일간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수국공원에서 진행한 '800만 송이 수국 랜선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랜선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1만 2400명의 참가자가 공식 홈페이지(수국축제공제.com)를 통해 수국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느끼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눴다. <신안군 제공>

목포 시내버스, 용역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찾는다

공론화위원회 착수 보고회

노선체계·운송원가 등 검증

목포 시내버스 휴업 신청을 계기로 구성된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운송업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각계 시민사회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용역착수 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는 12월27일까지 진행될 용역은 효율적인 시

내버스 운영과 노선체계 검증을 위해 실시된다.

시내버스 업체의 정산보고서와 운행일지, 버스 CCTV 등을 확인해 운행계통을 검증하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운송원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고, 추후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연말쯤 나오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 시내버스 운영형태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목포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유진운수는 경영난을 이유로 7월부터 1년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휴업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버스가 경정 정상화보다는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시민의 발을 불모로 휴업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들 시내버스는 휴업 예고를 신청 한달 만에 철회하며 향후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진도군 해수욕장

9일 개장 38일간 운영

사전예약제 등 방역 철저

진도군은 가계해수욕장 등이 오는 9일 개장해 8월15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가계해수욕장은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출입구를 일원화해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심콜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이다.

사전 예약은 네이버, 다음 등의 누리집에서 진도가계해수욕장을 입력해 예약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와 백신 확대 접종으로 지난해보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주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해수욕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 금강, 관매도, 신전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과 시간 등을 협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방역 관리에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 가계해수욕장.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파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